



# 트럼프 당선 이후 미 보험업계의 반응

권오경 연구원

여약

미 보험업계는 친 기업정책을 강조한 트럼프 후보의 대선승리에 기대감을 표시하였음.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 보험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오바마케어 폐지, 도드-프랭크법 폐지, 신인의무 규정 등임.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.

■ 제45대 미 대선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.

- 미국 보험업계는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친 기업정책을 강조하였던 트럼프의 승리에 기대감을 표시함.<sup>1)</sup>
  - 보험업계는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보험산업 발전에 부정적 정책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함.
- 보험산업에서는 오바마케어(건강보험개혁법, Affordable Care Act) 폐지공약에 대한 현실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.
  - 이 외에 트럼프 선거 캠프의 주요 공약이었던 도드-프랭크법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안정감시위원회(FSOC: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), 금융업자의 신인의무 규정(fiduciary rule)도 중요 이슈로 거론됨.

■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시절 완전폐지를 선언했던 오바마케어는 공약 현실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.

- 미 보험업계는 오바마케어 실시에 따른 운영난을 시사해 왔으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직후 기대감으로 보험주가 급등함.<sup>2)</sup>

1) AM Best(2016, 11, 9), "Insurance groups express cautious optimism over surprise trump victory".  
 2) 미 대선 익일의 S&P 보험업종지수는 전일 증가 대비 2.43% 상승(S&P 500 지수는 1.11% 상승), 나스닥 보험업종지수는 전일 증가 대비 1.36% 상승(나스닥 지수는 1.11% 상승)하였으며, 보험업종지수의 상승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.

-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기간 동안 오바마케어가 ‘재난’이라며 완전철회를 주장해왔으나, 대통령 당선 이후 오바마케어의 폐지에서 수정으로 정책선회를 발표함.
    - 유병력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불허와 26세 이하 자녀가 근로자 부모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조항 등은 유지할 것이라며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임.
  - 정치적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완전폐지 공약은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    - 트럼프 측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였음에도 오바마케어 철회를 위한 충분한 표가 확보되지 않아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상원에서 거부될 것이라는 견해임.
    - 또한 오바마케어 폐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보험으로 내몰리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트럼프 측의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 오바마케어 폐지의 현실화는 어렵다고 지적됨.
- 트럼프의 당선으로 도드-프랭크법의 존속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으며, 보험업계는 FSOC 해체에 주목하고 있음.
- FSOC는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(SIFI: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)으로 지정하여 포괄적 규제를 함.<sup>3)</sup>
  - 금융업계의 기대가 높으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, 민주당에서도 법 폐지를 막기 위한 견제가 시작되고 있음.
- 또한 보험업계는 그 동안 우려해왔던 금융업자의 신인의무 규정을 공화당 행정부가 무력화시킬 것으로 기대함.
- 연방노동부가 2017년 4월 시행을 발표한 금융업자의 신인의무 규정에 보험업계는 우려를 제시해 왔으며<sup>4)</sup>, 이번 행정부 교체로 신 규정이 당장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.
    - 변경되는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의 고객 신인의무에 따라 증권중개인도 401(k) 또는 IRA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마찬가지로 신인의무를 부담하게 됨.
- 보험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편이나 대선 이후 실현 여부가 반복되고 있어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. [kiri](#)

3) 현재 미국에서 SIFI로 지정된 보험사는 AIG, 프루덴셜, 메트라이프가 있으며, 메트라이프는 지정취소소송에서 승리함.

4) 이전에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중개인은 적합성(suitability)에 따라 상품을 권유하면 되었으나, 신 규정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(best interest)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가 낮아도 상품을 권유해야 하므로 판매수입이 감소하게 되며, 각사에서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함.